

26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설 연휴에도 메달 사냥 뜨거웠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번 설 연휴 기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을 이어갔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김길리(성남시청)는 지난 16일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61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김길리는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메달은 한국 쇼트트랙 여자부 첫 메달이기도 하다.

이번 결승전에서 5번째 레인에서 출발한 김길리는 5명의 출전 선수 중 최하위로 시작했고, 결승선을 4바퀴 남길 때까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승선 3바퀴를 남긴 상황에서는 인코스틀 파고들면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섰으나, 두 바퀴를 남기고 펠제부르와 사로에게 역전을 허용하면서 3위로 물러났다.

김길리는 마지막 바퀴에서 전력 질주로 역전을 노렸지만, 결국 두 선수를 따라잡지 못한 채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15일에는 황대현(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황대현은 이날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2초304의 기록으로 엔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이로써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딴 황대현은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앞서 13일에는 스노보드 최가운(세화여고)이 한국 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최가운은 이날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키 스노보드 여

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 3연패 위업에 도전한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 통틀어 막내인 최가운은 이로써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한국 실상 종목 역대 최초의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기도 하다.

아울러 최가운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최가운은 눈발 속에서 시작한 1차 시기에 서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다가 크게 넘어졌다. 그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고,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들어가 상태를 살폈다. 겨우 일어난 최가운은 2차 시기에서도 넘어지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획득하며 가법계 1위에 올라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의 3회 연속 우승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최가운은 무릎 통증에도 3차 시기에서 900도와 720도 회전 등을 안

정적으로 구사하며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이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내며 짜릿한 뒤집기를 연출했다.

클로이 김은 은메달, 오노 미쓰키(일본)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날 쇼트트랙 임종언(고양시청)

은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4초611의 기록으로 엔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 쉘톤(중국)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메달로 그는 이번 대회 빙상 종목 한국 선수단 첫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치열한 메달 레이스를 펼쳤던 한국 선수단은 19일 쇼트트랙에서 다시 금빛 낭보에 도전한다.

한국 여자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오전 5시(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대회 3000m 계주 결승에 나선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는 한국이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바라보는 종목이다.

1994년 릴레함메르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는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선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한 메달을 따지 못했으나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다시 2연패를 달성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밀라노에서 정상 탈환을 노린다.

컨디션은 좋다. 앞서 2025~2026시즌 월드컵에 1차 대회에선 계주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올림픽에서는 준결승을 조 1위로 통과하며 순항 중이다.

간판스타 최민정(성남시청)과 1000m에서 여자 대표팀 첫 메달(동메달)을 수확한 김길리가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는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 이승훈과 문희성(이상 한국체대)이 출전한다.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은 오후 10시 5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캐나다와 라운드르빈 마지마 경기를 치른다.

한편 한국은 한편 한국은 18일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16위를 기록 중이다.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은메달), 10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북고·동메달),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운(세화여고·금메달)·쇼트트랙 남자 1000m 임종언(고양시청·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m 황대현(강원도청·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m 김길리(성남시청·동메달) 등 현재까지 총 6개의 메달을 따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AI페퍼스, 정관장 제압…창단 첫 최하위 탈출

세트스코어 3-2 승리…13승 달성으로 최소 6위 확보

구단 역대 최다승·승점 연이어 경신…조이 40점 활약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정관장을 꺾고 창단 이후 첫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AI페퍼스는 18일 광주페퍼스타디움(임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5-17 25-19 21-25 22-25 15-5)로 승리했다.

그 결과 13승 17패 승점 38점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제 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6경기. 리그 7위 정관장(6승·승점 19점)은 남은 일정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AI페퍼스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결국 2021~2022시즌 V리그 합류 이후 매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AI

페퍼스는 이날 승리로 창단 이후 최초로 최하위 탈출을 확정 지었다.

AI페퍼스는 구단 역대 단일시즌 최다승·승점 기록 또한 연이어 경신했다. 앞서 지난 15일 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1(23-25 25-21 25-21 25-20)로 승리하면서 12승·승점 36점을 달성했다. 12승은 AI페퍼스가 2021~2022시즌 이후 기록한 단일시즌 최다승이다. 승점 또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지난 시즌에는 창단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 11승·승점 35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정관장전을 승리로 장식한 AI페퍼스는 올 시즌 최고의 기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

AI페퍼스는 이날 외인 조이가 양 팀 최

다 40득점(공격성공률 47.06%)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여기에 박은서가 22득점(공격성공률 48.65%), 시마무라가 11득점(공격성공률 33.33%)으로 나란히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장소연 감독은 박정아·박은서(아웃사이드 히터), 조이(아포짓 스파이커), 하혜진·시마무라(미들블로커), 이원정(세터), 한다혜(리베로)와 함께 경기를 시작했다.

1세트는 AI페퍼스가 압도했다.

하혜진의 속공으로 선취점을 따낸 뒤 시마무라 조이, 박은서를 앞세워 빠르게 치고 나갔다. 22-13으로 큰 격차를 유지한 AI페퍼스는 상대 박은진과 박여름의 반격에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한비의 오픈이 적중하면서 25-17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AI페퍼스는 세트 초반 박정아의 블로킹을 시작으로 4

연속 득점을 올렸다. 기세를 가져온 AI페퍼스는 11-4까지 달아났다. 박사랑의 서브 미스 이후에는 정관장이 매점계 추격했다. 상대 박여름이 시간차, 푼오픈으로 2점을 뺏아냈다. 이어 자네테가 오픈, 염혜선이 서브 에이스에 성공하면서 12-9까지 쫓아왔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조이가 연속득점에 성공한 이후 다시 흐름을 가져오면서 25-19로 AI페퍼스가 2세트를 차지했다.

3세트는 정관장이 웃었다. 9-9까지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정관장은 AI페퍼스의 범실로 기회를 잡은 뒤 12-20까지 앞서 갔다. AI페퍼스는 뒷심을 발휘하며 맹추격에 나섰다. 결과를 바꾸지 못한 채 21-25로 3세트를 내줬다.

4세트마저 내준 AI페퍼스는 5세트 조이의 맹활약을 앞세워 15-5로 승리,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설명회

관계자 30여명 참석…체육 참여 확대·운동 환경 조성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시장예인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개 구 장애인체육회와 종목별·유형별 가맹단체, 지역장애인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추진될 핵심 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핵심 사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변화된 체육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를 위해 공모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내에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특화 종목을 의무적으

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연령과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운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기존 스포츠클럽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도 필수 사항으로 안내됐다. 이를 통해 클럽 운영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시장예인체육회는 체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우리 동네 체육교실'을 확대 추진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을 '전국 1위'

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

전남도와 전남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시도별 장애인체육취업 선수 현황에서 전남의 취업 비율은 32.6%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7.8%)을 크게 웃도는 약 1.8배 수준이다.

전남 지역 장애인 체육선수는 287명이 공공·민간 분야에 취업했다. 등록 선수 881명 가운데 3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얻으면서 명실상부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1번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선수 관리와 지역 기관 간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됐다. 전남도와 전남장애인체육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선수 맞춤형 취업 상담, 기업 매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지역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적극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올해에는 취업 선수를 기존 287명에서 350명까지 확대해 취업률을 약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전국 1위의 선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8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한 AI페퍼스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KOV